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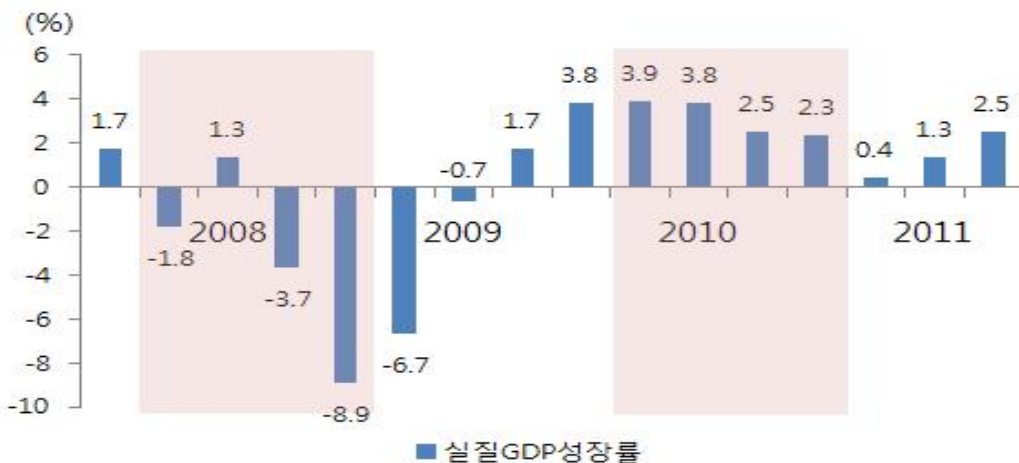


미국 3/4분기 실질GDP 2.5% 증가

김세중 선임연구원

- 10월 27일 미 상무부는 2011년 3/4분기 미국 실질GDP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에 힘입어 2.5% 성장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2/4분기 1.3% 성장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임.
- 2/4분기 0.7% 증가에 그쳤던 민간소비는 3/4분기 2.4% 증가하였으며, 내구재 소비는 2/4분기 5.3% 감소에서 4.1% 증가로 크게 호전되었고 비내구재소비와 서비스는 각각 0.2%, 3.0%의 증가율을 나타냄.
- 상품별로 보면 컴퓨터와 자동차 소비가 크게 증가했으며, 컴퓨터와 자동차 판매는 3/4분기 실질 GDP 증가에 각각 0.21%p, 0.07%p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.
- 3/4분기 설비투자는 16.3% 증가하면서 2/4분기 10.3%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, 설비투자 중 구조물 투자는 2/4분기(22.6% 증가)에 비해 둔화된 13.3%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제조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2/4분기 6.2% 증가에서 3/4분기 17.4% 증가로 증가율이 확대됨.

〈그림 1〉 미국 실질GDP 분기 성장률 추이



자료: U.S. Department of Commerce.

■ 3/4분기 수출과 수입은 모두 증가하였으나 수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, 정부지출도 국방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지방정부투자와 재고투자는 감소함.

- 수출과 수입은 각각 4.0%, 1.9% 증가하면서 2/4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, 정부지출은 비국방비지출이 3.7% 감소한 반면 국방비지출이 4.8% 증가하면서 2.0% 증가함.
- 지방정부투자는 1.3% 감소하였으나 2/4분기 2.8% 감소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둔화되었으며, 재고투자는 1.1% 감소함.

■ 3/4분기 명목개인가처분소득은 0.6% 증가하였으나 실질개인가처분소득은 1.7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개인지출이 증가하면서 개인저축률은 하락함.

- 3/4분기 명목개인가처분소득은 0.6% 증가하면서 2/4분기 3.9% 증가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으며, 2/4분기 0.6% 증가를 나타냈던 실질개인가처분소득은 3/4분기 1.7% 감소함.
- 개인지출이 4.9% 증가하면서 개인저축은 감소하였으며, 이로 인해 개인저축률은 2/4분기 5.1%에서 3/4분기 4.1%로 하락함.

■ 일부 전문가들은 3/4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이전의 경기침체를 만회하고 실업률을 하락시킬 정도로 높은 수준은 아니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고 평가함.

- 이코노미스트들은 실업률을 하락시킬 만한 경제성장이 근시일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, Economic Outlook Group의 이코노미스트 Bernard Baumohl은 2%대의 성장은 고용증가 측면에서 경기침체와 큰 차이가 없게 느껴질 것이라고 지적함.
- 컨퍼런스 보드의 애널리스트 Kathy Bostjancic은 실질개인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소비 증가세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기업인들 사이에서도 부정적 경기전망이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함.
- 또 다른 애널리스트는 개인저축률이 1.0%p 감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저축률 감소가 경기회복세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,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루비니 교수는 3/4분기 실질GDP확정치가 1%대로 하향조정될 수도 있다며 낙관론을 경계함.

(New York Times 등, 10/27)